

# 〈脉法〉의 砭法과 〈靈樞·官針〉의 針法の 比較

윤종화\*

\*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大韓醫療氣功學會

## I. 緒論

1973년 湖南省 長沙 馬王堆에서 漢代의 古墳群(B.C 168年 頃)의 發掘 중에 先秦, 秦 및 漢代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遺物과 竹簡 木簡 帛書 등에 記錄된 先秦의 多様な 文獻들이 出土되었다<sup>1)</sup>.

出土書籍 중 醫學著作은 經脈에 관한 〈〈足臂十一脈灸經〉〉(이후 〈〈足臂〉〉로 칭함), 〈〈陰陽十一脈灸經〉〉(이후 〈〈陰陽〉〉으로 칭함), 診斷에 관한 〈〈脈法〉〉 〈〈陰陽脈死候〉〉, 導引 및 氣功에 관한 〈〈導引圖〉〉, 〈〈却穀食氣〉〉, 藥物에 관한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性에 관한 談論의 〈〈合陰陽〉〉, 婦人科 書籍의 〈〈胎產書〉〉 등의 十四種이다<sup>2)</sup>.

한편 〈〈足臂〉〉 〈〈陰陽〉〉 〈〈脈法〉〉 〈〈陰陽脈死候〉〉 및 〈〈五十二病方〉〉은 같은 帛書에 기록되어 있고, 馬王堆의 出土 醫書에는 砭法과 灸法만 있고 針法은 없으며, 〈〈脈法〉〉은 〈〈足臂〉〉 〈〈陰陽〉〉의 뒤에 있고 〈〈陰陽脈死候〉〉의 앞에 있어 經脈의 診斷과 聯關이 있음을 推測할 수 있다<sup>3)</sup>.

1) 서론의 각주번호는 참고문헌 번호에 준한다.

經脈의 形成時에는 血管을 中心으로 發見되고 形成되어 “脈” 字에는 經脈과 脈診의 概念이 混在되어 있다<sup>2)4)</sup>. 〈〈脈法〉〉의 “脈”은 〈〈足臂〉〉 〈〈陰陽〉〉의 十一脈을 意味하고 導脈, 啓脈 및 相脈의 法則은 脈을 통한 疾病의 診斷, 治療의 方法이 包含되어 있으며, 또 癰腫의 治療에 癰腫의 크기 및 深淺에 따른 砭法의 大小의 活用법이 있다<sup>5)7)</sup>. 이에 論者は 〈〈脈法〉〉의 癰腫이 膿을 形成했을 때에 血管(脈)을 찌르거나 膿血을 除去하여 治療하는 “啓脈”에 利用하는 砭石과 〈〈靈樞·官針〉〉의 癰腫의 大小에 따른 針의 活用法의 〈〈脈法〉〉과의 聯關性을 살피는 것은 砭法과 針法の 聯關性 및 時代的인 治療法の 變遷과도 있을 것으로 思料되어 癰腫의 治療에 있어 〈〈脈法〉〉의 砭法과 〈靈樞·官針〉의 針法을 比較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 II. 研究方法

〈〈脈法〉〉은 全文 13 行의 400 餘字로 構成되어 있고 二種類의 傳本이 있다. 1973년 馬王堆에서 發掘된 甲本과 1976년 張家山에서 出土된 乙本이 있으며 甲本

은 脫字 및 毀損이 매우 甚하다. 乙本은 比較的 完整된 文字로 保存되어 있고 漢惠帝 (B.C 194 - B.C 188)의 名諱인 “盈” 字를 避하지 않아서 抄寫한 年代는 적게는 B.C 2세기 以前까지 遡及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脉法>>의 乙本을 基礎로 甲本으로 補完하고 修訂한 原文을 利用하고, <<靈樞·官針>>은 河北中醫學院의 <<靈樞經校釋>>의 引用하여 比較 研究하였다.

1. <<脉法>>의 原文은 <<馬王堆古醫書考釋<sup>5)</sup>>>을 底本하고 <<靈樞·官針>>의 原文은 <<靈樞經校釋>>을 比較하였다.

2. <<脉法>>의 原文의 解釋은 <<馬王堆古醫書考釋<sup>5)</sup>>> <<馬王堆醫書考注<sup>6)</sup>>> <<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sup>7)</sup>>>을 參考하여 原文을 翻譯하고 現在의 意味와 相通하도록 解釋하였고 <<靈樞·官針>>은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였다.

3. 校注는 <<馬王堆醫書考釋>> <<馬王堆醫書考注>> <<馬王堆漢墓醫書校釋(壹)>>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sup>8)</sup>>> <<黃帝內經素問校釋<sup>9)</sup>>> <<黃帝內經太素<sup>10)</sup>>>을 聚合하여 原文의 意味를 쉽게 把握있도록 簡潔하게 하였다.

### Ⅲ. 資料

(原文) 用砭<sup>1)</sup>啓脉<sup>2)</sup>者必如<sup>3)</sup>式<sup>4)</sup>; 癰腫有膿<sup>5)</sup>, 則稱<sup>6)</sup>其大小而爲之砭<sup>7)</sup>

(解釋) 이상의 治療方法은 砭石을 利用하여 血管을 瘞서 治療하는 方法은 반드시 一定한 規則을 參照하여야 한다. 癰腫에 化膿이 있으면 제일 먼저 膿의 大小深淺의 정도를 살피 砭法治療의 施術의 範圍와 砭의 大小를 確定한다.

(校注) 1) 砭 - 乙本에는 ‘砭’으로 되어 ‘砭’字를 다르게 쓰고 있고, 甲本에는 ‘砭’라 적어 石으로 石으로 ‘砭’字의 古字이다.

2) 啓脉 - 啓의 意味는 開啓이다. 此文句의 ‘啓’字의 뜻은 切開, 割破의 意味이다. 外科 手術의 “開刀”이며 “開”로도 稱한다. “脈”字는 血管을 指稱하고 “啓脈”은 혈관을 瘞서 治療하는 方法을 말한다.

3) 如 - 따르다, 본보기의 뜻이다.

4) 式 - 법칙, 규칙이다.

5) 癰腫有膿 - 甲本에 “癰”이 “壅”으로 되어 있으며, 癰과 壅는 上古音이 모두 同音이라 假借한다. “腫”자는 甲本 乙本에 모두 “種”으로 되어 있다.

6) 則稱 - 乙本에 “則”자는 없다. “稱”字는 度量 權衡의 뜻이다.

7) 而爲之砭 - 甲本에 “爲” “貶” 2자가 없다.

(原文) 砭有四害<sup>1)</sup>. 一曰<sup>2)</sup>: 膿深而<sup>3)</sup>砭淺謂之<sup>5)</sup>不選<sup>6)</sup>

(解釋) 砭石으로 血絡을 瘞서 癰腫을 치료할 때는 4가지 禁忌가 있다. 첫째, 膿腫의 부위가 매우 깊을 때에 砭石으로 瘞는 부위에 淺部에 施術하면 病巢를 除去하지 못한다. 이것을 不及이라 부른다.

(校注) 1) 砭有四害 - 甲本에 “砭”에서 “害”字까지 설명되어 있다. 害의 뜻은 禁忌이다.

2) 一曰 - 乙本과 같다. 甲本엔 없다.

3) 而 - 甲本에 없다.

4) 淺 - 甲本에 “淺”으로 되어 있다. 淺과 淺는 上古의 音으로 假借한다.

5) 謂之 - 乙本에는 “謂”가 “胃”되어 있다. 謂와 胃는 假借한다. 甲本에는 “之”가 잘못되어 “上”字로 되어 있다.

6) 不選 - 選은 미치다(及)란 뜻이다. <<

說文·辵部》에 “逕 迨也” 하여 不逕은 不及이다.

(原文) 二曰<sup>1)</sup>: 膿淺而砭深, 謂之太<sup>2)</sup>過<sup>3)</sup>

(解釋) 둘째, 膿腫이 淺部에 있고 砭刺를 深部로 깊게 하면 深部の 正常組織까지 損傷을 주는 것을 太過라고 부른다.

(校注) 1) 二曰 - 乙本과 같고 甲本엔 없다.

2) 太 - 甲本에는 없고, 乙本에는 “泰” 되어 있다. 古文에는 相通한다.

3) 過 - 超過 逾越 太過를 意味한다. <<素問·經脈別論>> “一陽之過也” 하여 <<素問>>의 王水注에서 “過 謂太過也”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 “各有太過 不及也” 하여 “太過 有餘也” 하였다.

(原文) 三曰<sup>1)</sup>: 膿大<sup>2)</sup>而砭小, 謂之斂, 斂者 惡<sup>4)</sup>不畢<sup>5)</sup>.

(解釋) 셋째 膿腫의 부위가 크고 砭刺하는 구역이 작은 것을 “斂” 이라 하고, 收斂의 結果는 더러운 病膿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校注) 1) 三曰 - 乙本과 같고 甲本엔 없다.

2) 膿大 - “大” 字는 뒤에 “畢” 字로 되고, 甲本에는 완전히 없다.

3) 斂 - 원래 澹으로 되어 있고 “스며들어 전염하다” 의 뜻이며, 此 文句의 病機와는 다르다. 斂과 澹은 上古音이 모두 淡部韻이며 韻이 같아 假借한다. “斂” 字는 <<說文·支部>>에 “斂 收也” 되어 있으며 收斂 約束 緊縮을 意味가 있다. 다음 문구의 “泛” 字와 서로 對應한다.

4) 惡 - 惡의 뜻은 汚穢하다는 말이다.

5) 畢 - 결속, 완결의 의미이며, 不畢이면 不盡이라 하였다.

(原文) 四曰<sup>1)</sup>: 膿<sup>2)</sup>小而砭大 謂之泛<sup>3)</sup>. 泛者 傷良肉<sup>4)</sup>也.

(解釋) 네째, 膿腫의 부위가 작는데 砭刺하는 범위를 크게하면 膿腫周圍의 正常組織까지 破壞된다. 이것을 泛濫이라 한다. 泛濫의 結果는 健康한 肌肉組織까지 損傷된다.

(校注) 1) 四曰 - 乙本과 같다. 甲本엔 없다.

2) 膿 - 甲本엔 없다.

3) 泛 - 泛 (汎, 汎과 같음) 字는 <<說文·水部>>에 “泛 濫也” 하여 汎濫하여 물이 넘쳐 흐르는 모양을 뜻한다.

4) 傷良肉 - “食”은 “蝕”의 假字이며 假借한다. “蝕”자의 意味는 侵蝕, 歎息의 意味이며 古籍중에는 大部分 “食” 字로 대신 쓰고 있다. “食肉”과 “傷肉”은 같은 의미다.

(原文) 膿多而深者<sup>1)</sup>, 上黑而大<sup>2)</sup>. 膿少而深者<sup>3)</sup>, 上黑而少. 膿多而淺者, 上白而大. 膿少而淺者, 上白而少<sup>4)</sup>. 此不可不察也<sup>5)</sup>.

(解釋) 膿液의 量이 많고 人體의 깊숙히 位置해 있으면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黑色을 나타내고 病變의 面積도 크다. 膿液의 量이 적고 人體의 깊숙히 位置해 있으면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白色을 나타내고 病變의 面積은 작다. 膿液의 量이 많고 人體의 얇은 位置에 있으면 膿瘍 部位의 외부의 모양은 대부분 白色이 나타나고 病變의 面積은 크다. 膿液의 量이 적고 人體의 淺層에 位置해 있으면 膿瘍 部位의 外部의 모양은 白色이 나타나고 病變의 面積은 작다. 이상은 膿腫의 診察에 注意하여 分別하여야 한다.

(校注) 1) 膿多而深者 - 甲本에는 “多而深者”가 없다.

2) 上黑而大 - 甲本에는 “上黑”2자가 없다. “上”자는 身體表面을 指稱한다. “膿小而深者”에서 “上白而大”까지 甲本에선 없다.

3) 膿少而深者 - 甲本에는 “而”와 “者”가 없고 “少”가 “小”로 되어 있다. “少”와 “小”는 假借한다.

4) 上黑而少 - 甲本에 전부 없다.

5) 此不可不察也 - 甲本에 “此不可不” 4자가 없다. “察”字는 辨別의 뜻이다.

## IV. 考察

長沙 馬王堆 漢墓에서 出土된 古代佚書 중에서 《脉法》이라 稱하는 著作이 한 권 있다. 《脉法》은 모두 十三行 약 四百餘字로 되어 있고, 張家山에서 출토된 《脈書》에도 《脉法》의 內容이 있고, 《史記·倉公傳》을 보면 陽慶이 淳于意에게 준 著作 중에서 《脉法》의 內容과 비슷한 것이 있다.

《脉法》의 砭石으로 癰腫을 治療하는 原則과 方法을 論한 것으로 砭石으로 “啓脈”하는 治療法을 運用하고 있다. 이는 古代 醫家들이 癰腫의 發病과 治療는 모두 脈과 直接的인 連繫가 있는 것으로 認識하였다는 說明이다.

馬王堆의 《脉法》 및 張家山の 《脈書》에는 針法이 없이 灸法과 砭法만이 있고, 《史記》의 倉公의 醫案에서 針法이 記載되어 있는데, 《脉法》에서 《脈書》로 다시 倉公의 醫案에서 治療方法의 變化를 살펴보면 砭法과 灸法이 針法의 發展에 影響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砭法의 脈絡을 刺는 原文은 《靈樞·長刺節論》<sup>9)</sup> “治腐腫者 刺腐上 視癰小大深淺刺刺大者多血 小者深之 必端內鍼爲故止” 하여

《脉法》의 條文과 類似한 記錄이 있다. 이는 《脉法》의 治療原理가 延變된 根據로 볼 수 있다.

또 《脉法》에는 癰腫部位의 大小深淺과 砭石을 이용하여 治療하는 四種類의 禁忌를 提示하고 있다. 이는 《內經》에서 針으로 癰腫을 治療하는 理論과 一致하며 砭石을 代身해서 “九鍼”으로 바뀌었다. 즉 《靈樞·官針》에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不得其用 病不能移”라 하였다.

癰腫의 大小深淺과 砭石을 이용하는 四種類의 禁忌에서 첫째 《脉法》의 “膿深砭淺”는 《靈樞·官鍼》 “病深 鍼淺 病氣不得泄 支爲大膿” 하였고, 許<sup>5)</sup>는 “《外科證治全書·卷五·鍼法》 “肉厚 鍼淺 則毒膿不出 反益其癰” 하여 鍼石을 잘못 쓰면 不良한 結果를 招來한다” 하였고, 둘째 《脉法》의 “膿大砭小”는 《靈樞·官鍼》 “病大 鍼小 氣不泄瀉 亦復爲敗” 하였고, 셋째 《脉法》의 “膿小砭大”는 《靈樞·官鍼》 “病小 鍼大 氣泄太甚 疾必爲害” 하였다.

此文을 山田<sup>12)</sup>은 “《脉法》의 文句에서 膿을 病으로 砭을 針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서 《太素·卷二十二·九針所主》 《靈樞·官針》의 文句로 砭石의 操作原則이 九針의 操作原則으로 轉化하였다는 것을 확연히 立證되고 있다.” 하였다.

또 《脉法》에는 癰腫의 化膿程度를 鑑別하는 方法을 論述하고 있다. 癰腫의 外形적 色澤明暗에 대한 比較(黑과 白)는 化膿된 부위의 深淺에 대한 指標가 되며, 癰腫의 面積大小는 化膿된 病變의 범위에 대한 진단방법은 臨床의으로 簡便하고 쉽게 利用할 수 있는 方法이며 明確하고 客觀的 標準이 된다.

以上을 보면 戰國時代의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출토 醫書의 砭法과 灸法은 漢代의

著作으로 推測되는 <<靈樞>>의 針法으로 延變되어 發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脉法>>에서 膿을 刺하는 砭石에 관한 論述이 <<靈樞·官針>>의 直接的인 原形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V. 結論

<<脉法>>의 癰腫 治療法의 砭法과 <<靈樞·靈樞>>의 癰腫 治療法의 針法과의 延變關係를 보면 戰國時代의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脉法>>의 砭法과 灸法은 漢代의 著作으로 推測되는 <<靈樞>>의 針法으로 延變되어 發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向後 <<靈樞·官針>>의 各種 刺法과 灸法 및 砭法과 相關關係를 穿鑿하여 研究하면 針刺法의 理解 폭이 넓어 질 것으로 思料된다.

## VI. 參考文獻

1. 王雪胎. 中國針灸薈萃.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1-25.
2. 周一謀. 馬王堆醫學文化. 上海 : 文匯出版社. 1994: 1-13, 35-47.
3. 金南一. 印昌植 공역.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 法仁文化社. 2000: 54-55.
4.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 122, 137-145, 182-185.
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274-320, 294.
6.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42-45.
7. 魏啓鵬, 胡翔驊. 馬王堆漢墓醫書考釋. 成

都 : 成都出版社, 1992: 36-40.

8.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1-575.
9.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286-302, 292-294.
10.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155-173.
1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 大成出版社, 1985: 183-192.
12. 山田慶兒. 新發現中國科學史資料의 研究·論考篇. 京都: 明文舍印刷商社株式會社. 昭和60年: 44.